

새롭게 시작된 인연에게, 칫데

2016년 9월 미얀마 양곤
준영, 도현, 정민, 유진의 이야기



칫데[chitdae] : 사랑해

| Prologue |

“이 사진 속에는 슬픈 전설이 있어.”

왜 이제 막 미얀마로 떠나려고 공항에 모인 라온아띠 16기 찻데팀이 세 명 뿐인거죠?
그건 바로 도현 단원이 자신의 여권을 집에 두고 왔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그의 집은 인천공항에서 가까운 광명시라서 여권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정민, 준영, 도현 단원은 기내에 반입할 수 없는 대용량의 화장품들을 가지고 검색대를 통과하려다가 퇴짜를 맞고 다시 그 짐들을 추가 수화물로 붙이기 위해 돌아나가야 했어요.

이 때, 정민 단원이 유진 단원의 여권을 챙겨 나가는 바람에, 유진 단원은 여권을 잃어버린 줄 알고, 검색대의 온 직원들이 여권 찾기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들이 간신히 해결되고 정신을 차리고 나서, 다른 나라로 떠나는 아띠들과 작별인사를 나누다 보니, 역시나 감수성이 풍부한 라온아띠 16기 찻데팀답게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특히 도현 단원은 정말 폭.풍.오.열. 을 하고 말았어요.



비행기까지 타는데 우여곡절이 참 많았지만, 액땀했다 생각하기로 했어요.

좀 전까지 평평 올려 놓고는, 기내식 나왔다고 좋아하는 칫데팀...
참 먹을 거 정말 좋아하는 단순한 사람들이네요.

2016년 9월 8일 목요일 자정에 가까운 늦은 밤, 드디어 라온아띠 16기
칫데팀 준영, 도현, 정민 유진 단원은 미얀마 양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낸 첫 한 달...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잘 살아남았을까요?

“칫데팀의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 Contents |

소개합니다

1. 한 달 일정
2. 팀원소개
3. 양곤 YMCA, 동반자 소개
4. 찻데팀 활동 소개
게스트하우스 일일스텝
미얀마어 수업 # 널서리 # 아띠클럽

찻데 사진전

- # 우리 어느 특별한 날 (1)(2)(3)
- # 흘랑따야 # 쉐빠따 # 양곤YMCA # 마오플라바
- # 우리 어느 특별한 날 (4)(5)(6)
- #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부록 찻데팀 뇌구조 전격해부

개인 에세이



1. 한달일정

September 2016

Mon	Tue	Wed	Thu	Fri	Sat	Sun
			8 킷데팀 미안마 도착	9 양곤Y라운딩, 보족시장, 첫 장보기	10 NUAC 졸업공연 관람	11 산드라 집 방문
12 GH 일일스텝, 미안마어수업, 스마일& 예조포 만남	13 Day off	14 홀랑따야 라운딩	15 쉐페마 라운딩	16 양곤Y넬서리, 미안마어수업	17 아미클럽 첫만남	18 휴식 (넬서리 준비)
19 GH 일일스텝, 미안마어수업	20 먀오플라바 (비행기)	21 홀랑따야 (비행기), 마이크로파이 넬스 라운딩	22 쉐페마 한번 더 관찰	23 양곤Y넬서리 (행사 리허설), World YMCA 방문	24 아미클럽	25 휴식
26 GH 일일스텝, 미안마어수업, 로에 생일파 티/저녁식사	27 먀오플라바 (자기소개)	28 홀랑따야 (자기소개)	29 쉐페마 (자기소개)	30 양곤Y넬서리 (비행기), 알츠하이머 행사, 수업		



| 소개합니다 |

* 멀쩡해 보이는 찿데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부록을 참고해주세요~ *

2. 팀원소개



엄준영

‘말없이 카메라를 든다’



하도현

“ I’m still hungry...”



송정민

“ 내가 바로
미얀마 연예인 ”



임유진

“ 아가들
넘나 사랑스러운 것 ”



3. 양곤 YMCA, 동반자 소개

양곤 YMCA는 라온아띠 미얀마팀의 호스트기관으로서 16기를 다섯 번째 가족으로 맞이하고 있다. 12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양곤 YMCA는 게스트하우스 운영, 마이크로파이낸스, 널서리 운영, 기타/킥복싱/가라데와 같은 교육프로그램 운영, 암 환자/에이즈 환자/알츠하이머 등 다양한 환자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양곤 YMCA에는 칫데팀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잠자리를 제공해주시고, 삼시세끼를 책임져주시고, 한국 땅에서 온 어리숙한 네 명의 대학생을 따뜻하게 맞이해주시는 수많은 간사님들과 직원분들이 계신다. 그리고 5개월 동안 칫데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동반자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산드라

양곤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막 끝내고 나오는데, 두 팔을 가득 벌려 우리를 환영해주었던 산드라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칫테팀이 미얀마에 있는 동안 우리를 지켜줄, 든든한 보호자이시다.

영어를 능숙하게 하지 못하는 우리는 산드라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렵기도 하다. 때론 공지해주신 일정을 잘못 알아듣기도 하고,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직설적인 표현을 써서 감사님을 놀라게 한 적도 있었다. 아직도 너무 서투른 우리들이지만, 산드라와 잘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로에

산드라의 조카이며, 얼마 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곧 치대생이 될 인재이다.

우리가 활동할 때마다 동행해주며 영어로 번역해주는 고마운 친구이다.

한국어를 습득하는 속도가 남달라 매번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다. “준영오빠 사랑해”, “(눈을 감으며) 준영오빠 뽀뽀해줘”와 같은 엄청난 어록들을 남기며 우리에게 큰 웃음을 선사해주기도 했다.





꽃미소만 보이던 도민이
이렇게 새침한 표정도 지을 줄도 알고
귀엽네ㅎㅎ
앞으로도 잘 부탁해



민민또

첫데팀 제 5의 멤버이며, 또민민/민또민/도민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항상 첫데팀 곁에서 모자란 우리를 케어해주는 멋진 코디이다. 미안마어밖에 하지 못해서 초반에는 소통이 다소 어려울 것 같았지만, 우리는 눈빛, 표정, 말투, 몸짓만 봐도 통하는 소울메이트이다(짱긋). 요새는 또 한국어를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데, 정말 기특하다.

처음에는 낮가리는 척 했지만, 그의 매너, 친절함, 따뜻함, 귀여움, 배려, 아 이들이랑 잘 놀아주는 자상함, 눈 마주치면 하얀 이를 자랑하며 싱긋 짓는 미소 등등은 금방 들통이 나버렸다.

첫데팀 여성단원들은 이 마성의 남자의 매력에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아... 걱정되니까 밥 좀 잘 챙겨먹어 이 친구야.



4. 첫데팀 활동소개



게스트하우스 일일스텝

양곤 YMCA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찻데팀도 신관 게스트하우스 7층에서 지내고 있다. 14기 때부터 양곤팀 아미들은 일주일에 한 번 게스트하우스 일일스텝으로 일해왔으며, 우리도 매주 월요일마다 직원분들이 하시는 일을 조금씩 돕고 있다. 이런 시간을 갖지 않았다면 어색한 인사만 하고 지나쳤을 Y의 수많은 직원분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하고,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주변의 것들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직원분들이 마치 내 친구나 이웃사촌처럼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처럼 느껴졌고, 평소에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이 감사해졌다.



신관 5,6,7층 하우스키퍼 일을 맡게 되면 베이비, 마윈니, 찌찌예를 만날 수 있다. 틈날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챙겨주는 베이비, 항상 우리에게 귀엽다고 해주시는 마윈니, 귀여운 애교쟁이 찌찌예와 함께 하는 날이면 청소하는 일도 전혀 힘들지 않다.



구관 하우스키퍼는 울리에와 함께 한다. 손이 불편한데도 능숙하게 침대시트를 갈아 끼워 넣는 솜씨는 정말 달인이라 할 만 하다.

구관은 남자 숙소이고 여자들이 일하기에 위험할 수 있다며, 구관 청소의 경우 준영/도현 단원이 번갈아 가며 일하도록 스케줄을 짜 주셨다. 이에, 도현은 왜 이 일을 남자만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공평하게 모두 돌아가며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산드라는 그를 설득하려고 노력하였고, 그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문화적 차이와 성평등... 우리는 어디까지 이해하고 어떤 가치를 더 우선시해야 하는 걸까?

게스트하우스 일일스텝



신관 로비에 들어서면 리셉션이 바로 보인다. YMCA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공간을 지나가야 한다. 그래서 일일스텝 때 리셉션을 맡게 되면, 여기서 일하시는 스텝들과 간사님들, 게스트들까지 모두 만날 수 있다.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미안마어를 조금씩 배우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금방 지나가 있다. 사실 다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전화 받고 일하시는데, 멀뚱히 앉아 있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죄송스러운 느낌도 든다. 어서 미안마어를 더 공부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리셉션에서는 메뚜, 설라, 칸타, 케티, 모마마, 에이프릴투 등 우리 또래의 젊은 친구들이 일하고 있다. 항상 우리가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는지, 밥은 먹었는지 꼭 물어봐 주는 착한 친구들... 그들과 더 깊은 인연을 만들어 가고 싶다.



일일스텝으로 일할 때는 만나지 못 하지만, YMCA 안의 수많은 스텝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 그 중 우리의 식사를 책임지시는 YMCA 셰프 누누똥! 까탈스러운 입맛을 가진 대식이 찻데팀의 입맛변덕을 최대한 맞춰가며 요리해주시고 배식해주시는 그녀... 아침 일찍부터 에어컨도 없는 구관 4층, 더운 불 앞에서 종일 요리하시는 그녀에게 정말 감사 드린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YMCA 직원분들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고민하고 있다. 그분들의 일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유대감을 형성하고 싶다. 차근차근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다.

미얀마어 수업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수준급 노하우를 가지신 베테랑 선생님 띠띠 (왼쪽)와 에띠(오른쪽)이다.

사실 단원들마다 미얀마어 수업시간에 배우고 싶은 부분이 조금씩 다르다. 정민과 준영은 아이들이 공부하듯이 글자를 읽고 쓰는 것부터 단계별로 배우고 싶어하며, 유진은 실생활에서 혹은 활동지에서 자주 쓰이는 회화표현을 위주로 배우고 싶어한다. 수업이 진행될 때마다 선생님도, 교재도 바뀌다 보니, 수업 시간마다 연결이 잘 안 되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 10월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한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3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신관 2층에서 찻데 팀의 미얀마어 수업이 이루어진다. 양곤 YMCA 널서리 선생님이시기도 한 에띠와 띠띠가 그룹과외를 하듯 우리를 지도해주신다. (가끔 민민또와 로에도 도와준다.)

귀에 쫓쫓 들어오는 목소리로 한 글자, 한 단어, 한 문장씩 꼼꼼히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미얀마어 수업 때만 되면 우리는 어린 아이 때로 돌아가는 것만 같다. 교재도 실제로 미얀마 아이들이 쓰고 있는 책을 사용하며, 띠띠의 관심과 충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준영은 아이들 전용 글씨 연습공책을 받아 공부하고 있다. 부럽다..



널서리

널서리는 라온아띠 미안마팀 활동의 꽃이다. 활동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유진과 정민은 널서리 때문에 미안마를 지원했을 정도였다. 미안마에 도착하고 첫 주는 흘랑따야, 쉼빠따, 양곤YMCA 등 우리가 활동할 사이트를 라운딩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부분 하루에 1시간, 길어야 2시간 정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이동시간 또는 휴식시간이었다. 몇몇 단원들은 회의감이 들기도 했다.

우리는 산드라에게 사이트 선정 이유에 대해 물었고, 지역별로 설명을 들으니 고개가 끄덕여졌다. 우리밖에 갈 수 없고, 우리라도 가야 하고, 우리라서 갈 수 있는 곳들이었다. 처음 본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고 반갑게 맞이해주던 사랑스러운 아이들 모습이 떠올랐다. 5개월, 일주일에 한 번뿐이지만 아이들이 그 시간만큼은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게 하고 싶다, 이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해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생각1. 5개월 동안 매 주 정기적으로 만나는 아이들이 매 시간 연결성을 느꼈으면 좋겠다. 우리만의 긴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나가면 더 잘 각인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에서 온 우리(비행기) > 처음 만난 우리(자기소개) > '나'에 대한 이해(신체) > 가족 > 친구(우리) > 사회 > 동/식물 > 환경 > 우주

생각2. 아이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예체능 교육을 위주로 하자. 동요 매들리로 워밍업 > 메인활동(음, 미, 체의 조합) > 예비 게임, 정리 게임

생각3. 아이들에게 어떤 역량을 키워줄 수 있을까? 미술(소재의 다양성, 색감, 촉감, 자유로운 표현방식, 창의성), 음악(음감, 친화력, 표현능력), 체육(협동심, 배려, 규칙이해, 유연성/순발력/균형감각 등의 신체능력 증진), 감수성(환경-지속가능성, 위생, 안전), 언어(간단한 한국어표현-산드라)

위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매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보자는 큰 방향성을 정했다. (오랜 시간이 걸렸던 토의 과정이었다.) 또, 한 번 시작하면 대충은 못 하는 스타일인 우리 첫데팀... 항상 일을 사서 벌리고 후회하곤 한다.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좋다.

실제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첫데 사진전'에서 확인해주세요!



아띠클럽



아띠클럽은 라온아띠 미얀마 1기 때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끈끈한 모임이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고, 한국에 관심이 있는 미얀마 청년들이 모이는 자리, 아띠클럽! 그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미얀마에 막 도착하고 우리가 정신이 없어 페이스북에 공지도 올리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 동안, 구원의 손길이 다가왔다. 바로 아띠클럽의 살아있는 전설 스마일오빠! 우리에게 먼저 연락도 주시고, 대원학교에 홍보를 해줘서 새로운 멤버도 모집해주시고, 아띠클럽 멤버들을 모아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수호천사처럼 아띠클럽과 라온아띠 16기 칫데팀의 만남을 주선해주시고 그는 고향으로 훌훌 떠나셨다. (보고 싶어요. 스마일오빠..)

그리고 9월 17일 토요일, 우리는 그들과 첫만남을 가졌다. 과연 얼마나 와줄까 걱정되었는데 우리를 포함해서 총 16명이나 모였다. 날이 정말 더웠고, 에어컨이 잘 나오지 않는 5층 라이브러리에 모두 앉을 공간도 없는 것 같아서 무작정 건물을 나왔다. 작은택시 한 대에 무려 9명이 끼어 타서 도착한 곳은 쉐다곤 파고다 옆에 있는 People's Park! 첫만남의 어색함도 잠시 잊고 함께 놀이기구도 타고 산책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서로를 알아갔다. 추이언니, 보미언니, 뚜뚜언니는 아띠클럽의 역사를 함께 한 선배님이신 만큼, 병 찌있는 모자란 칫데팀을 이끌어주고 도와주었다. 쑤테타, 하니, 테테는 18살 동갑내기 여대생인데 수줍게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며 우리와 공감대를 형성해주었다. 대원학교 출신인 예조포와 헤인뚜는 한국어 공부에 열정을 쏟고 있는 쏘테통, 묘민페이에게 우리 아띠들을 소개해주었다.

아띠클럽

어려운 미얀마어 때문에 소통의 답답함을 느껴갈 때, 그들을 만난 건 가뭄의 단비 같은 일이었다. 낯선 미얀마 땅에서 한국어를 하고, 한국에 관심을 가져주는 내 또래의 청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정말 고마운 일이었다.

24일에 열린 두번째 모임에서는 닐라, 표위, 팜머머가 새롭게 함께 했고, 우리는 YMCA와 가까운 롯데리아에서 답소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려고 주말을 내어준 이 친구들을 위해 우리가 너무 준비를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사실 요즘 칫데팀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아띠클럽 친구들과 매주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을까이다. 한국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한국어를 매일매일 열심히 배우고 있다는 대원학교 친구들을 위해 라이브러리에서 모여 한국어 수업을 여는 것이 좋을지... 이전 기수처럼 양곤의 여기저기를 놀러 다니며, 즐겁고 재미있는 추억들을 쌓아가는 것이 좋을지... 산드라는 YMCA 밖을 벗어나 활동하는 것은 걱정되니까 야외 활동은 최대한 자제했으면 하시기도 한다.

한 가지 방향으로 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저 이 친구들이 원하는 것, 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들과 더 깊은 인연을 쌓을 수 있는 10월을 기대해본다!



| 칫데 사진전 |

준영은 칫데팀을 위해 거금을 투자하여
엄청 좋은 카메라 한 대를 장만했다.
덕분에 칫데팀은 미얀마에서 보낸 9월 한 달
을 생생히 기록하고 추억할 수 있게 되었다.

칫데팀이 한 달 동안 어디를 가고, 어떤 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 사진으로 재구성해보
았다. 그 한 달의 발자취를 따라가보자.

(사진 많음 주의, 편집자 주관 주의)


09 5400 345 , 09 3388 4488

Photo by 준영, 도현, 정민, 유진
Edited by 유진

우리 어느 특별한 날 (1) 보족시장 투어

우리가 8일 늦은 밤 미얀마에 도착하고 난 후,
바로 다음 날부터 우리는 미얀마와 양곤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다.

양곤 YMCA 근처를 돌아다니며 첫 장도 보았고, 관광객들의 필수코스라는 보족시장도 둘러보았다.
보족시장에서는 곧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셨던 파란 총장님의 선물을 대신 골라드리기 위해 산드라와
함께 미얀마 전통 악기와 전통 모자 쇼핑을 했는데,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악기 가격에 한 번 놀랐고,
한국과 정말 다른 듯 비슷한 시장 풍경에 왠지 모를 익숙함도 느꼈다.



우리 어느 특별한 날 (2) NUAC 공연관람

양곤에서 맞이한 우리의 첫 주말, 첫 문화생활은 정말 고품격이었다. 국내훈련 때도 각종 축제 기간이 맞물릴 때 광주에 머무르며 광주의 흥과 열정을 가득 느낄 수 있었는데, 양곤에서도 첫데팀에게는 항상 행운이 따르는 것 같다.

10일 토요일, NUAC(National University of Arts and Culture)의 20번째 졸업공연 및 전시회가 National Theatre.에서 열렸는데, 산드라는 우리도 VIP 좌석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

미얀마 전통 오케스트라와 현대 음악의 콜라보레이션, 전통 연극과 뮤지컬, 인형극, 다큐멘터리와 단편영화까지. 미얀마 양곤 예술의 젊은 유망주들이 표현하는 미얀마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예술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 넓은 무대를 자신들의 몸짓, 목소리, 에너지로 가득 채워나가는 미얀마 청년들의 열정이 정말 멋져 보였다.

미얀마 전통에 자부심을 갖고, 그들만의 방법으로 이를 발전시켜나가는 모습에서 이 청년들이 정말 미얀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과연 나의 분야에 얼마큼 몰두하고 있을까.
나는 우리나라의 어떤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었던가.





우리 어느 특별한 날 (3) 산드라 집 방문

양곤의 버스... 선배단원분들이 집을 주셔서 그런지 정말 두려움 반 걱정 반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첫 버스 승차 느낌은? '어! 나쁘지 않은데!' 였다. 의자들 사이 간격이 참 좁구나, 버스 차장님의 목소리가 정말 우렁차시구나. 버스가 참 많이 덜컹거리는구나... 정도? (이 버스가 정말 양호한 버스였던 걸 모르고 우리가 참 선불리 판단한 것이었음을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하하)

우리가 탔던 첫 버스의 목적지는 산드라의 집! 산드라는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 사람들과 집에 모여 함께 기도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저녁식사를 하신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에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귀요미! 이 모임의 메인 보컬인데 그의 꿀 바른 듯한 감미로운 목소리에 우리들의 귀가 사르르 녹았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 반갑게 맞이해주셨던 산드라의 어머니,
 빨간 전통의상이 정말 잘 어울리시는 소녀 같은 짹짹이셨다.
 미스 미얀마 출신이라고 하시며 장난도 쳐주시고,
 사인 좀 부탁 드린다는 요청에
 방긋 웃으시면서 또박또박 이름을 적어주신 사랑 넘치시는 짹짹.
 또 뵙고 싶어요!



짜젠조 (고기와 계란을 넣은 볶음국수)를 정말 폭풍 흡입한 우리들!
 한 사람당 거의 3접시는 똑딱 해치웠는데도, 더 먹으라고 권해주시는
 푸근한 인심에 찻데팀은 감동, 또 감동이였다.



흘랑따야
(Hlaingtharyar)





매주 수요일,
우리는 양곤 Y에서 버스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흘랑따야에 간다.

우리의 첫 널서리 라운딩 사이트였던 흘랑따야...
50명의 아이들이 멀뚱멀뚱 다소 낯설고 어색한 눈망울로 우리를 쳐다보는데,
이 아이들과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 조금 걱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걱정도 잠시뿐
한 아이가 달려와 안아달라고 손을 꼭 뽀글레
비행기를 태워주었더니

50명의 아이들이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우리에게 달려왔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아이들의 뽀박질이 시작되었다.

자유롭게 뛰어 놀고,
나 잡아봐라 술래잡기를 하고,
간지럼을 피울 때만큼은
그 어떤 사이트보다 역동적으로 바뀌는 이곳.

흘랑따야에 가는 날에는 우리 모두 밥을 든든히 먹어야 한다.





도현은 아기 편애왕이다.
그의 편애는 널서리 첫날부터 시작되었다.

민트색 귀여운 옷을 입은 포카지를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올랐다는 그.
'마이썸', '빽빽이'라는 애칭을 붙여주며 하루 종일 포카지만 안고 다녔다.





“나매벨로코올래♪
 쏘마나매 수수떼♪ (발레?)
 쏘마나매 수수떼♪
 뚜이야라 완따바레♪”

첫주 우리의 널서리 프로그램은 ‘비행기 만들기’였다.

우리를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날아온 언니, 오빠라고 소개하면서, 여러분만의 예쁜 비행기를 만들어 하늘로 날려보라고 설명했다.

평소에도 씨야마들과 색칠공부나 손근육활동을 해왔던 홀랑 아이들은 색칠을 정말 꼼꼼하고, 예쁘게 한다.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가 공들여 만든 커다란 하늘 종이에 날리는 활동은 하지 못했지만 자신만의 비행기를 가진 아이들은 비행기를 손에 쥐고 뛰어다니며 정말 기뻐했다.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이 소개했으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소개를 해줄래요?

둘째 주, 아이들은 새 모양 이름표를 꾸몄고 우리는 한 명씩 미얀마어와 한국어로 아이들 이름을 채워 넣어주었다. 나라나리 개나리 동요 멜로디에 맞춰 만든 자기소개 노래는 씨야마와 민민포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처음 몇 주간 흘랑파야 아이들은
우리를 볼 때마다
처음 본 사람인 것처럼 낯을 가려 했다.

(그러다가 술래잡기를 하면 또 엄청 좋아하고...
이 밀당쟁이들)

썸야마들도 웬지 수줍은 미소를 지으시며
한발자국 뒤에서 우리 활동을 지켜보시곤 하셨다.



다소 정적인 분위기에
같은 프로그램이더라도 흘랑에서는
좀 더 역동적으로 활동을 진행해보자고 다짐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은 우리를 반가운 눈빛으로 맞아준다.
썸야마들도 숨겨왔던 노래와 춤 실력을 조금씩 방출해주신다.

이 아이들도, 우리도, 선생님들도
서로에게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다.
성급하지 않은 이 속도가 정말 좋다.



그리고 흘랑따야에서는 다른 사이트와는 다른 특별한 활동이 진행된다.
바로 마이크로 파이낸스.

가부장적인 미얀마 사회에서는 주부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어렵다.
양곤 YMCA는 이들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소액을 대출해주어 소득을 내고 저금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는 양곤 Y의 가장 가장 큰 사업 중 하나이다.

프로그램과 관련된 교육을 4주간 받고 난 아주머니 5명이 한 팀을 이루어
대출을 받으면, 정해진 이율에 따라 연대적으로 매주 조금씩 돈을 상환하는
시스템이다.



덥서리가 끝난 어느 오후,
우리는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Q&A 시간을 가진 후,
가까운 곳에서 음식을 팔고 계시는 아주머니와 잠깐 인사를 나누었다.

그것이 9월 마이크로 파이낸스 활동의 전부였다.

과연 아주머니들 가정을 방문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외국 대학생인 우리에게 과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
이들과의 만나면서 미얀마 주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것이 우리의 이기심은 아닐지...

많은 고민이 들고, 선불리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활동인 것 같다.



아!
 흘랑따야에서 우리의 동반자,
 우웬툷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작은 체구이시지만
 누구보다 인자한 미소를 가지신
 꽃중년 우웬툷 할아버지.

버스 안에서
 짧은 영어와 미얀마어를 섞어가며
 널서리 활동을 설명 드리는
 우리를 보실 땐
 항상 '홀홀홀... 오오오~' 하고
 웃으신다.

요샌 우리 프로그램을 구경하시며
 흐뭇한 미소를 지어주시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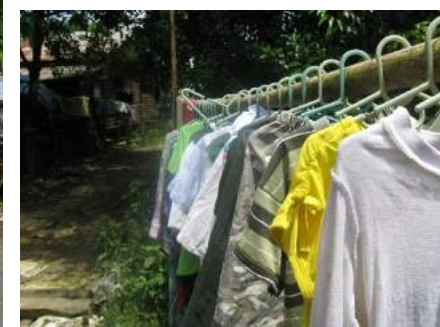
함께 해요, 우웬툷!

항상 다음 순간이 점점 더 기대되는 흘랑따야.
 그곳에서 펼쳐질 10월의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쉘피따
(Shwepyithar)





정말 험난한 여정이었다.

8시에 양곤 YMCA에서 출발했는데 11시가 넘어서 도착했다.

버스가 위아래로 덜컹거리는 건 애교였다.

버스가 360도로 회전했다. 이런 경험 처음이었다.

어느 날 탔던 버스는 철판 바닥 아래로 땅바닥이 보였다.

우리... 괜찮겠지?

그렇게 도착한 쉼터.

푸르른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초록빛 싱그러운 나뭇잎들이 반짝이는 나무들도 있었다.

아이들이 소리 모아 책을 읽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쉼터의 헤어날 수 없는 매력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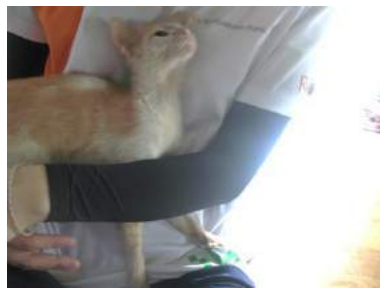


쉐삐따에는
선글라스가 잘 어울리시는 멋쟁이 쎬야로가 있다.

항상 우리가 갈 때마다
커피나 과자, 러펫예를 대접해 주신다.
정말 행복하다.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서슴지 않고 달려와
품속에 얼굴을 부비는 아기 고양이도 있다.
이 아이의 애교에 맘을 뺏긴 사람이 한 두 명이 아니다.

내 품에 안겨있다가
뒤도 안 돌아보고 다른 사람에게로 달려가는 뒷모습을
보면 질투가 난다. 미워, 너.



유진은 쉼새마을과 가장 먼저 사랑에 빠졌다.

첫 날 점심시간 아이들이 모여들어 깜짝 장기자랑을 펼쳤는데,
동요부터 랩까지 종알종알 수줍게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외치며 반갑게 인사해주는 아이,
손을 꼭 붙잡고 동네를 산책하자며 귀엽게 앞장서는 아이,
누나한테 주고 싶다고 연꽃모양 열쇠고리를 손에 쥐어주고 도망가는 아이
어쩔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나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

그리고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장난스러운 얼굴로 옆구리를 간질거리고 도망가는
개구쟁이 한 아이와 술래잡기를 한 것 뿐이었다.
정확히 10분 뒤 유진은 사방에서 달려드는 옆구리 찌르기 장인들에게 속수무책 당하고 말았다.
그녀의 ‘머로우네(하지마)’는 그저 허공에 맴돌 뿐이었다.

매주 아이들의 장난감이 되는 일, 아주 아주 조금은 괴로워 보이지만
그 순간조차 행복해 하는 걸 보면 그녀는 정말, 정말이지 쉼새마을을 좋아하는 것 같다.





정민은 쉼때따 아이들의 에너지를 좋아한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주고 손을 흔들며 인사해주는 아이들이 항상 고맙다.
천진난만하고, 티없이 밝은 이 아이들과 함께하니 정민은 점점 희춘하고 있다.
누가 선생님이고 누가 학생인지 구분이 가질 않는다.

준영도 점점 쉼빠따에 물들고 있다.
처음 아이들과 어색어색하던 분위기는 이제 찾아볼 수 없다.

쉼빠따에서 사진을 찍을 때면 항상 그는
본능적으로 '엄지척' 자세를 취한다.
그에게 쉼빠따는 최고인가보다.





도현은 항상 그렇게 주장했다.
난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싫어져. 말 안 하는 애들이 예쁘다.

하지만 도현 말을 잘 알아들어주는 이 쉐빠따 아이들만큼은 예외인가보다.
1학년 아이들 수업을 맡았을 때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는 무력무력 자라나고 있는 교사 꿈나무이다.





쉐빠따는 다른 사이트와 다르게
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정민 준영은 유치원 반을, 도현 유진은 1학년을 맡았다.

정규 시간표가 있는데도 우리를 믿어주시며
45분이라는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해주셨다.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
즐거운 수업시간을 선물해주고 싶다.



9월 마지막 주,
쉐빠따에서 우리의 첫 수업이 시작되었다.

유치원 반은 이름표 만들기 활동을 했다.
예쁘게 꾸민 자신만의 이름표에
언니, 오빠가 한국어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
주자 아이들의 눈망울이
반짝반짝 빛난다.



1학년 아이들은 정말 수준급의 색칠 실력을 가지고 있다.
색연필 수가 부족해 옆의 친구와 나누어 쓰라고 하니, 사이 좋게 함께 쓴다.

널서리 아이들보다 훨씬 많은 활동을 시도해보았는데,
자기얼굴 그리기, 간단한 한국어 표현 배우기 등의 활동들도 거뜬히 해낼 수 있었다.
'사랑해'라고 하며 머리 위로 큰 하트를 그리는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예쁘다.





그리고 목요일마다 쉼빠 일정을 함께 해주시는
우리의 동반자 우띠이!

킹스맨의 콜린퍼스가 미얀마 사람이라면
이런 느낌일까?
그의 행동, 말투 하나하나에는
항상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묻어났다.

버스나 기차에서도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할머니,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아주머니 등등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분이 있으면
항상 가장 먼저 일어나 자리를 양보해 주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젠틀남이시다.

소싯적에 얼마나 많은 여심을 흔들고 다니셨을까...

그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인기남이다.

1학년 반을 도와주신 그가
사실 성공적인 수업의
일등공신이었다고 한다.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그를 보면
천상 참교사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쉐빠따에서 양곤YMCA로 돌아오는 길은
꼭 여행을 가는 길 같다.

덜컹이는 트럭버스를 타고 시장 입구에서 내려
시장 구경을 하고 정신 없이 걷다 보면
어느 샌가 골목 틈 사이로
Hlawga 기차역이 뿡 나타난다.

매표소 옆 작은 가게에서 사먹는 탄산음료는
그야말로 꿀맛이다.



3시 15분에 출발하는 기차에 몸을 싣고
창 밖을 바라보면
그야말로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느릿느릿 여유롭게 달리는 기차에서

맑았던 하늘이 금새 어두워지고 비를 뿌리다가
어느 새 개인 파란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이 피어나는 걸 보면
미얀마의 변화무쌍한 하늘이 놀라울 따름이다.



그리고 등 뒤로 비추는 따뜻한 햇살에
우리는 스르르 잠이 든다.





10월 첫째 주는 아이들 시험기간이고,
둘째 주와 셋째 주는 학교가 문을 닫는다고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쉼삐따에 가서 아이들을 모아 활동을 하려고 한다.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와 해맑은 웃음소리가 가득한
이 곳, 쉼삐따가 좋기 때문이다.



양곤 YMCA



매주 금요일 아침만큼 행복한 순간도 없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 널서리 사이트로 이동해야 하지만 금요일, 양곤 YMCA 널서리가 있는 날은 출근시간이 30초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여유롭게 늦잠을 자도 되기 때문이다.

아이들과 만났던 첫 날,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내려가니
20명이 채 안 되는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깨끗하고, 쾌적하고, 넓은 공간에서
비교적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그런데 아이들이 참 조용조용했다.
마구 뛰어다니거나 소리치는 아이는 없었고,
정적인 분위기에서 차분하게 스스로 잘 놀고 있었다.

도시 아이들이어서 그런가?
왠지 모를 새침함도 느껴지는 것 같았다.

아이들 인원 수가 적다 보니 선생님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좀 더 관심을 갖고 지도하시는 것 같았다.
에피 선생님도 숙련된 노하우로
아이들에게 질서와 예절을 가르쳐주셨다.

하지만 그만큼
아이들이 자유분방하게 놀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이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동요를 섭렵하고 있다.
매일 아침, 10곡이 넘는 노래를 매들리로 소화하는 이 아이들은
World YMCA 방문 기념 행사의 특별 무대를 훌륭히 꾸며내기도 했다.
귀여운 목소리와 앙증맞은 울동으로 동요를 부르는 아이들의 모습은 정말 찻서야레(귀여워)이다.

아이들과 함께 했던 비행기 활동도 정말 성공적이었다.
웅기중기 모여 그 작은 손에 색연필을 꼭 쥐고 비행기를 예쁘게 꾸미는 모습,
정말 즐겁게 뛰어다니면서 완성된 비행기를 날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덩달아 우리도 기쁘고 행복했다. 괜스레 뿌듯한 기분도 들었다.
매번 우리를 볼 때마다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것이 느껴진다. 그 변화가 너무나 고마울 따름이다.

양곤 YMCA 널서리는 다른 사이트에 비해 활동 시간이 가장 길다.
우리는 이 건물에서 상주하고 있고, 이 유치원 공간에서 미안마어 수업도 이뤄지기 때문에, 여기 아이들은 더 자주 마주치게 된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이 아이들의 이름을 가장 먼저 기억하기 시작했고, 아이들만의 매력도 파악할 수 있었다.
우리만 알고 있기엔 너무나 사랑스러운 몇 명의 아이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이 아이는 토진태이다.

양곤 YMCA 널서리에서
가장 날렵하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가진 아이 중 한 명이다.

블록을 누구보다 길게 이어 붙여
칼처럼 휘두르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데 그 품이 예사롭지 않다.
납작 엎드려 바닥을 기어 다니고,
제자리에 서서 몇 바퀴를 회전하고도 흔들리지 않고
표적을 바라보는 눈빛이...
장차 무사계의 큰 별이 될 것만 같다.



이 아이는 네레인떼이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눈을 감거나
흔들린 사진 뿐이어서 마음이 아프다.
그렇지만 이 아이는 꼭 소개해야 했다.
이 아이는 천사인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어떤 아이의 이름을 모르면
네레인떼에게 물어보면 된다.
누구보다 친절하게 또박또박 가르쳐준다.
자기도 얘기면서 더 어린 애기들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보면 절로 웃음이 지어진다. (특히 빵디의 어미새이다.)
착하고, 의젓하고, 또똥하고, 애교 많고, 배려심 넘치는
네레인떼는 사랑이다.





이 아이는 샤인이다.

그의 양증맞게 튀어나온 배,
비엔나 소시지 같은 팔,
찰싹떡처럼 말랑말랑한 볼을 보면
자꾸만 만져보고 싶어서 큰 일이다.

칫데팀 운동왕 도현조차도
그를 들어올리다가 허리가 나갈 뻔했다.

이 아이 여러모로 위험하다.



이 아이는 빵디이다.
미얀마어로 빵디는 사과이다.

빵디는 이제 2살 반이 되었다. 정말 어리다.
하지만 믿을 수 없다.
그의 표정은 흡사 인생무상을 느끼는 80세 할아버지같이
고요하고 평온하기 때문이다.

주위에서 그 누가 장난을 걸고 재롱을 피워도
그는 한결같이 시크하고 통명스럽다.

이 나쁜 남자의 매력에
모두들 자존심 따위 전부 버리고
한 번 더 재롱을 피운다. 마성의 아기이다.

마오플라바
(North Okkalapa)





매주 화요일,
우리는 마오플라바에 간다.
널서리 사이트 중 가장 마지막
라운딩 장소였던 마오플라바는

시작부터 좋았다.

버스를 타고 한 시간 정도밖에 안 달렸는데, 벌써 도착이란다!
정류소 앞에는 쎬야마들이 양산을 들고 마중까지 나와계셨다.

유치원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이들이 미어캣처럼 고개를 돌려 우리를 반갑게 쳐다본다.
슬금슬금 아이들 뒤로 가 앉으니
우리들 품 속으로 아이들 두 세 명씩 기어들어와 자리를 잡는다.

애들아, 우리 오늘 처음 본거 맞지?



아이들과 첫 만남이었지만 다른 사이트들보다 한 주 늦게 만난 것이어서, 첫 날부터 바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 본 낯선 언니, 오빠들과 활동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미얀마에서 친화력이 가장 좋은 아이들,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 TOP 50을 뽑아 모아놓은 유치원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이 아이들은 우리의 서툰고 부족한 활동들을 좋아해주었고, 열심히 따라주었다.

딩달아 우리들도 신이 나서 최선을 다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아이들은 정민의 품을 참 좋아한다.
그녀의 품은 남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나 보다.
아이들은 자식이라도 달린 것처럼, 무언가에 홀린 듯 그녀의 품 속으로 들어간다.

덕분에 그녀는 한 달 만에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아이들을 안아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였고,
영락없는 다둥이 엄마 포스를 풍기게 되었다.

그녀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
아이들의 사소한 것 하나하나 걱정하고 신경 쓰며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녀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 표정 주의

어떻게 이 작은 아이들에게서
이렇게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온 몸으로 관심을 표현하고
거침없이 다가와
아낌 없이 안아주는
이 아이들의 사랑법이
언제나 놀랍다.



유진은 이렇게 한 바탕 아이들과 놀다가
함께 낮잠을 자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다.
바로 이런 게 평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조용히 돌아가는 선풍기 소리에,
썰야마의 자장가 소리에,
아이들의 췌근췌근 숨소리에
우리도 달콤한 잠이 든다.



저 아이가 바라보는 것은 카메라 렌즈가 아니라, 준영이다.
준영은 이 귀여운 꼬마 숙녀에게 간택 당했다.

이 아이는 하루 종일 준영 곁을 따라다녔고,
그녀 덕분에 낮잠 시간 다른 아이들은 그의 품에 접근할 수조차 없었다.

준영은 항상 말한다.
자신은 유아 교육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고.
여성 단원들만큼 꼼꼼하게 프로그램을 숙지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조금 어렵다며...
널서리 때면 항상 스스로에게 부족함을 느끼는 그이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는 것 같다.
그가 아이들을 안아줄 때마다, 비행기를 태워줄 때마다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지.
그 순간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기억이 되는지.





도현은
이렇게나 해맑은 미소를 가지고 있고,
티없이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다.

처음에는
널서리 활동에 대해 약간의 회의감도
갖고 있었던 그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만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





미안마어가 부족한 우리들의
든든한 지원군 민민또.

훗날 아빠가 된 그의 모습이 궁금하다.
그는 아마 최고의 아빠일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했던 첫 비행기 활동.
 시간이 부족해서
 하늘을 함께 꾸미지 못하고
 임시로 만들어 갔던 저 작은 하늘에
 비행기를 날렸다.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각자 자신이 비행기를 타고 가고 싶은
 그 장소를 떠올리고 외치며
 비행기를 날렸다.
 아이들에게 저 하늘은 결코 작지 않았다.



비글미 넘치는 마요플라바 아이들과 활동하는 모습을 본다면
 무언가 통제되지 않고, 진행이 더디고, 소란스럽다고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곳에서의 활동을 가장 만족스러워한다.
 정말 아이답게 우리와의 시간을 즐기는 아이들을 보며
 우리는 항상 기쁘고 뿌듯하다.

그만큼 널서리 준비의 중요성도 가장 많이 느끼게 된다.



째야마들은 정말 사랑이 넘치는 목소리로 자장가를 부르고
한 명 한 명 정성스럽게 토닥이며
아이들 낮잠을 재우신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맛있는 간식을 챙겨 주신다.

낮잠을 자고 난 후 아이들은
짐을 챙겨 떠나가는 우리들을 정말 열심히 배웅한다.
창문 틈 사이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우리가 골목길에서 사라질 때까지 '따따(안녕)'를 외친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말한다.
따오는 사랑입니다.
라고.



수요일 흘랑따야 뿐만 아니라
화요일 마오에서의 일정도 함께 해주시는 우리의 동반자 우웬툓.

그가 론지를 걷어 올리셨다. 아니, 그의 발 밑에 저 물들은 무엇일까?

폭격소리같이 커다란 천둥이 치며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어느 날,
마오플라바는 물바다가 되었다.

널서리가 끝나고 양곤 YMCA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모두 바지를 걷어 올리고, 얇은 냇물을 건너 듯 휘적휘적 물 속을 걸었다.
아이들이 긍정 에너지를 가득 충전해줘서 그런지, 재미있었다. 물놀이를 하는 기분이었다.

자전거도, 자동차도 물 위를 달렸다.
집 안까지 물이 들어와 차버렸는데도 마을 사람들은 그저 밝게 웃고 있었다.
마오플라바에 오면 어떤 걱정도 다 사라진다. 마오는 사랑이다.



우리 어느 특별한 날 (4) World YMCA 방문

9월 23일, World YMCA의 Secretary General 세 분이 양곤 Y를 방문했다.

양곤 YMCA의 주요 활동들에 대해 간략히 브리핑을 하고, 현 미얀마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공통된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닥터 Johan은 YMCA 안에서 청년들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시며, 한국에서 온 우리 라온아띠 4명에게도 큰 관심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기를 기도하셨고, 앞으로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해주셨다.

그 인자한 미소에, 따뜻한 악수에 우리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양곤 Y 널서리 아이들의 특별 환영 공연)



우리 어느 특별한 날 (5)

로에 생일파티

10월 1일 우리의 동반자 로에는 17살이 되었다.
그 주 월요일, 그의 생일파티를 겸해서 우리는 외식을 하였다.
정말 오랜만에 즐기는 바깥 음식이었다.

고급 레스토랑이어서 그런지,
비싼 가격(한 사람당 5000짖=5000원 정도)에 비해 양은 정말 작았지만,
촌스러운 티를 내지 않고, 품위 있게 먹으려고 노력했다.

행, 누나의 음식값을 계산하는 막내 로에가 대견했다.
로에야, 이 날 저녁 덕분에 정말 맛있게 먹었어.
항상 한국어로 우리에게 큰 웃음 주어 고마워. 생일 축하해!

그리고 이 날은 민민토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가 한 층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다.
도민아, 이제 우리 형제야. 항상 고마워! (짱긋)



우리 어느 특별한 날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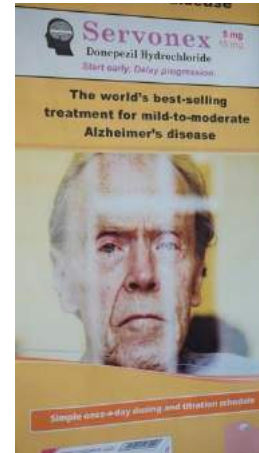
세계 알츠하이머의 달 기념 행사

9월 30일, 양곤 YMCA 신관 4층에서 세계 알츠하이머의 달 기념 미팅이 열렸다. 양곤 Y에서도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위한 Memory Clinic을 운영하고 있을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며, 미얀마 알츠하이머 협회와 함께 마련한 큰 행사였다.

올해 캠페인의 주제는 'Remember me'로, dementia를 앓고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나아가 사회와 정부의 움직임까지도 촉구하고 있었다.

이 날은 특히 알츠하이머 증상을 완화하거나 진행속도를 늦출 수 있는 최신의 치료법(치료약)을 소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사실 이 행사는 모두 미얀마어로 진행되었고, 우리는 아무 것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집중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자리에 멍하니 앉아있는 것이 부끄럽고 답답했다. 앞으로 이런 언어의 장벽에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 극복해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취 뼈파에서 기차를 타고 돌아오던 어느 날이었다. 유난히 창 밖의 바람이 살랑거리고 덜컹덜컹 규칙적인 기차소리가 편안히 들리는 날이었다. 유진과 정민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이라는 잠언시집을 꺼내어 한 편 씩 번갈아 가며 소리 내어 읽어보았다. 마음이 맑고 고요해지는 것 같았다. 조금 싱숭생숭한 날이었던 그 때 우리는 위로를 받았다.

이 시집 속 어느 시의 어느 구절을 읽으니 어떤 단원이 떠올랐다. 또, 어느 시를 읽으니 어떤 단원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구절이 있었다. 그렇게 모은 구절들을 소개하며, 사진전을 마무리 하려고 한다.





세상을 정복하더라도

고대 산스크리트 시인

내가 세상을 다 정복하더라도
나를 위한 도시는 오직 하나뿐.
그 도시에 나를 위한
한 채의 집이 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나를 위한 방이 하나 있다.
그 방에 침대가 있고,
그곳에 한 여인이 잠들어 있다.
내가 있을 곳은 오직 그곳뿐.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은 잊어 버렸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있게 여겼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 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아,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중략)



입맞춤을 즐겼으리라.
정말로 자주 입을 맞췄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 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중에서

김벌리 커버저





그런 길은 없다

아무리 어둔 길이라도
나 이전에 누군가는 이 길을 지나갔을 것이고.
아무리 가파른 길이라도
나 이전에 누군가는 이 길을 통과했을 것이다.
아무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그런 길은 없다.
나의 어두운 시기가
비슷한 여행을 하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베드로시안

| 부록 | **킷데팀** 뇌구조 전격해부!!!

-Edited by 정민-



정상적이었던 **킷데팀**의 모습은 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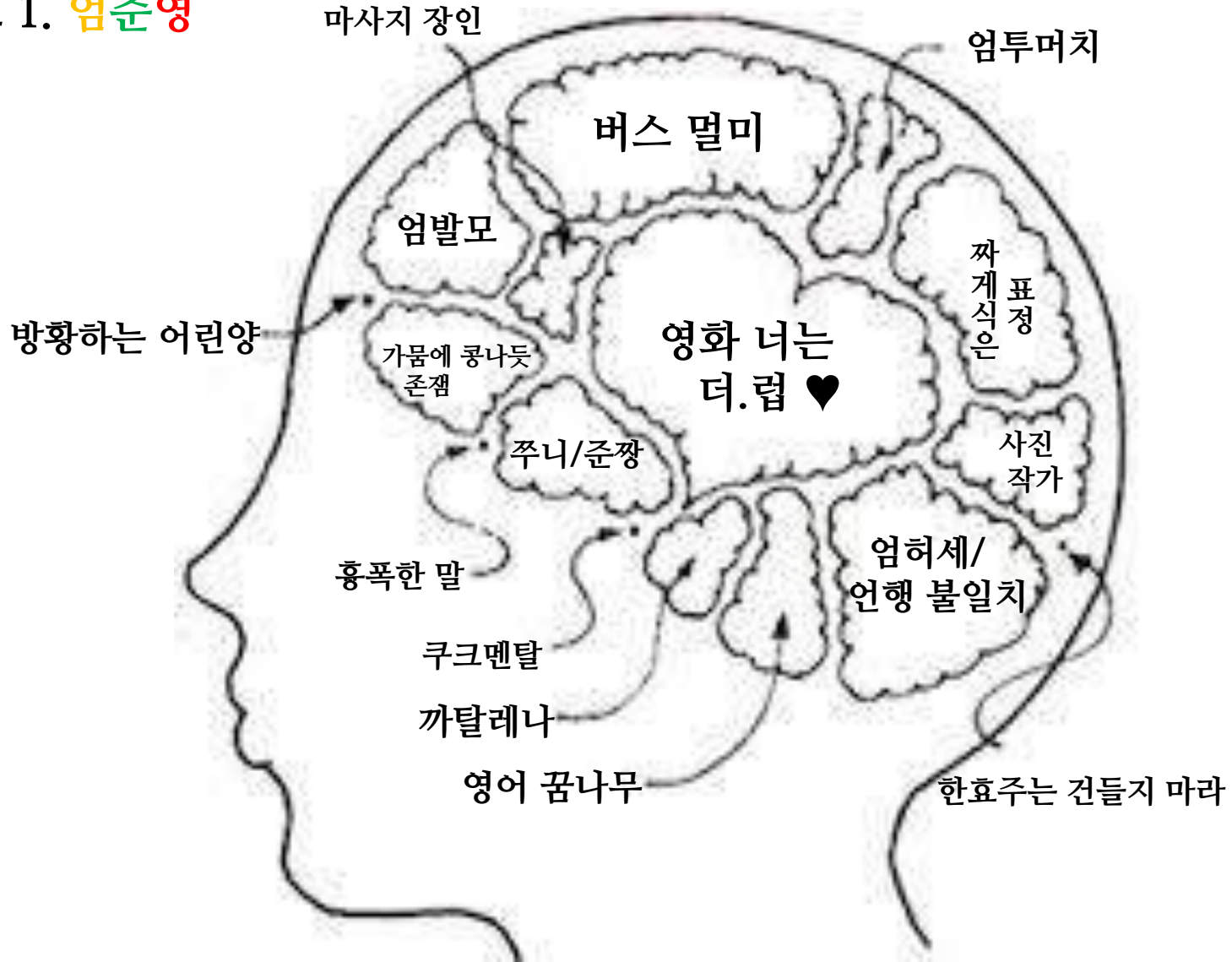
한 달 동안 치밀하게 팀원들을 관찰해 보았다.

뇌구조를 통해 팀원들이 자주 쓰는 언어습관,
특징, 사소한 행동 등을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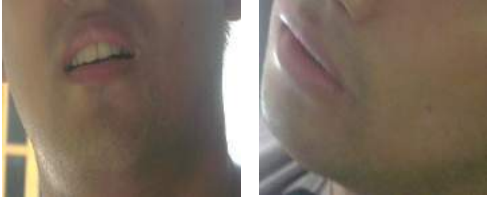
그럼 지금부터 GO GO~~!!!

*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썼으나, 개그 욕심으로 인해 과장됨 주의 *

후보 1. 엄준영



후보 1. 엄준영



▶ 1. 선명한 수염자국



▶ 2. 사진을 향한 그의 열정



▶ 3. 버스멀미로 힘든 준짱

▶ 4. 짜.게.식.은.표정



1. 엄발모 :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미친 듯이 자라나는 그의 수염. 널서리 후 어느새 거뭇해진 수염을 보며 언제나 감탄 중. 영양분들이 다 수염으로 가는 걸까.

2. 사진작가 : 사진을 넘나게 잘 찍는 것. 칫데팀의 없어서는 안될 메인 사진 작가님 이시다. 칫데팀의 화보같은 수많은 사진들을 찍어준 장본인.

3. 버스 멀미 : 칫데팀 중 버스 멀미가 가장 심하다. 버스만 타면 그는 정신줄을 놓는다.

4. 짜게 식은 표정 : 말 그대로 짜디 짜게 식은 표정. 주로 유진, 정민 단원이 까불거릴 때 자주 볼 수 있다. 볼 때마다 재미있다.

5. 방황하는 어린 양 : 미얀마 디스코 팡팡을 타는 그의 모습은 마치 방황하는 어린 양 같았다. 이리 저리 붕붕 뜨며 날아다니는 그의 모습을 구경하던 사람들은 크게 웃었다고 한다.
(*준영단원 폐북참고ㅋㅋ)

6. 엄투머치 : 그에게 중간이라는 것은 없다. 잘 나가다가 항상 빼끗한다ㅋㅋㅋ.

7. 까탈레나 : 까다로운 입맛의 소유자. 미얀마 음식을 먹을 때 마다 그는 항상 까탈을 부려 동생들에게 면박을 듣는다.

8. 엄허세/엄행 불일치 : 일단 말을 뽕고 보는 그. 지켜진 것이 별로 없다.ㅋㅋ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단원들은 항상 놀린다고 한다.

9. 가뭇에 콩나듯 존잼 : 수없이 많은 개그의 씨를 뿌리지만, 얻어 걸리는 빅재미는 한 두개.ㅋㅋㅋ

10. 주니/준짱 : 동생들의 우주주와 일방적인 괴롭힘을 잘 받아주는 우리 착한 주니. 마음씨 좋은 맏오빠이다.

11. 흥폭한 말 : 다소 흥폭한 말을 자주 하나, 사실 그럴 마음은 1도 없는 귀여운 오빠이다. 항상 저줘서 고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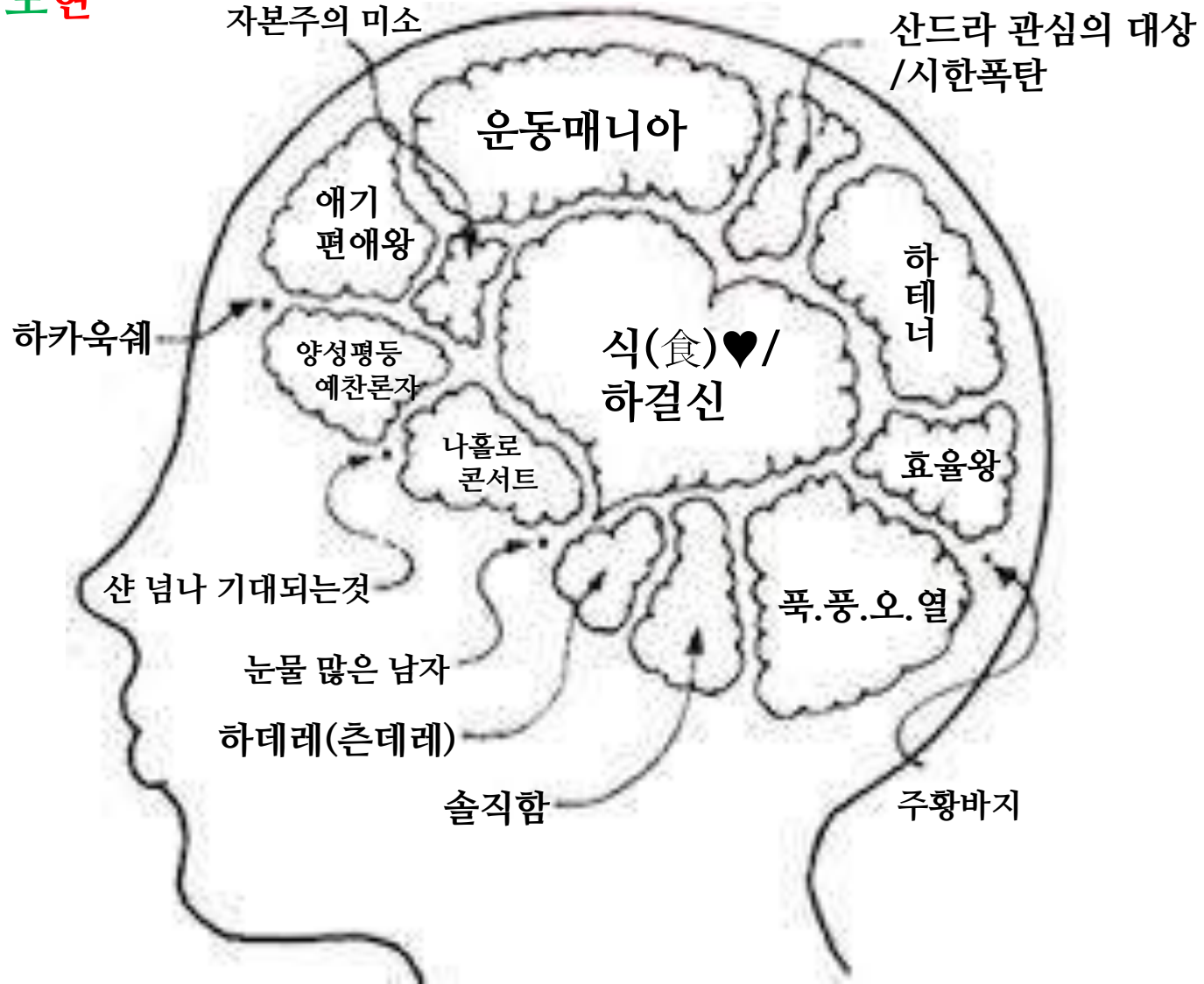
12. 영화 너는 더.럽 : 영화를 매우 좋아하는 그. 영화를 사랑하는 감수성 넘치는 남자이다.

13. 스포츠 마사지 장인 : 손바닥부터 시작해서 다리 팔 어깨까지 다양한 스포츠 마사지를 두루 섭렵하고 있다. 정민, 유진 단원에게 고급스킬 전수 중.

14. 영어 꿈나무 : 미얀마에서 영어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 열심히 공부하는 그. 나날이 발전하는 그의 실력에 놀라울 따름이다.



후보 2. 하도현



후보 2. 하도현



▶ 1. 오른쪽이 자본주의 미소



▶ 2. 애정의 대상 포콰지



▶ 3. 시선강탈 주황바지.
보아라. 3색 패션을 선보이는 저 당당한 자태를

1. 자본주의미소 : 실제로 1도 관심없으나 티를 못 낼 때 자주 짓는 미소. 아주 온화하다. 그 순간의 사진이 없어 비슷한 걸로 대체한다.

2. 애기 편애왕 : 자칭 my son 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에게 무한한 애정을 준다. 특히 '포콰지' 라는 이름의 아기를 좋아한다.

3. 주황 바지 : 정체불명의 주황바지를 자주 입는다. 무지개 패션의 창시자. 빨,주,노 로 조화를 이룬 그의 패션에는 멋짐이라는 것이 폭.발☆

4. 폭풍 오열 : 국내 훈련 이후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을 것 이라고 호언장담하던 그는 출국 날 역대급의 눈물을 보였다ㅋㅋ. 라온아띠 단원들과 작별할 때, 공항버스에서, 비행기안에서 ... (동영상으로 다 찍어놓음)

5. 하데레(츄데레) : 시작 전에 하기 싫거나 못한다고 츄츄거리나 막상 하면 잘한다. 이런 츄데레 같으니.

6. 운동매니아 : 자신의 건강을 넘나 중요시 한다. 매일 광적으로 운동하며 몸 만들기에 열중한다.
7. 식(食)/하결신 : 한번에 3인분의 양을 거뜬히 소화하는 그. "I'm still very very hungry!!"는 산드라를 향한 그의 명대사.
8. 하카웁쉐 : 1일 1카웁쉐를 먹을 수 있다고 말 할 정도로 카웁쉐를 좋아한다.
9. 양성평등 예찬론자: 산드라를 향해 양성평등을 이야기했다가 호되게 혼났다.
10. 솔직함 : 자신의 감정에 매우 솔직하고, 하고 싶은 말은 담아두지 않고 말한다.
11. 눈물 많은 남자 : 눈물을 잘 흘리지 않을 것 같으나 의외로 그 반대. 여린 구석이 있다.
12. 하테너 : 평소 노래를 자주 흥얼거리는 그. 널서리 활동 중 아이들에게 풍부한 성량으로 노래를 불러 빅 재미를 주었다.
13. 산 넘나 기대되는 것 : 곧 가게 될 산에 대해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 그. 지금보다 더 자유로울 것 같다는 희망에 넘나 기대 중.

14. 산드라 관심의 대상/시한폭탄 :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그의 발언들로 인해 노심초사 했던 팀원들. 그의 발언들로 인해 도현 단원은 산드라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되었다. ㅋㅋㅋ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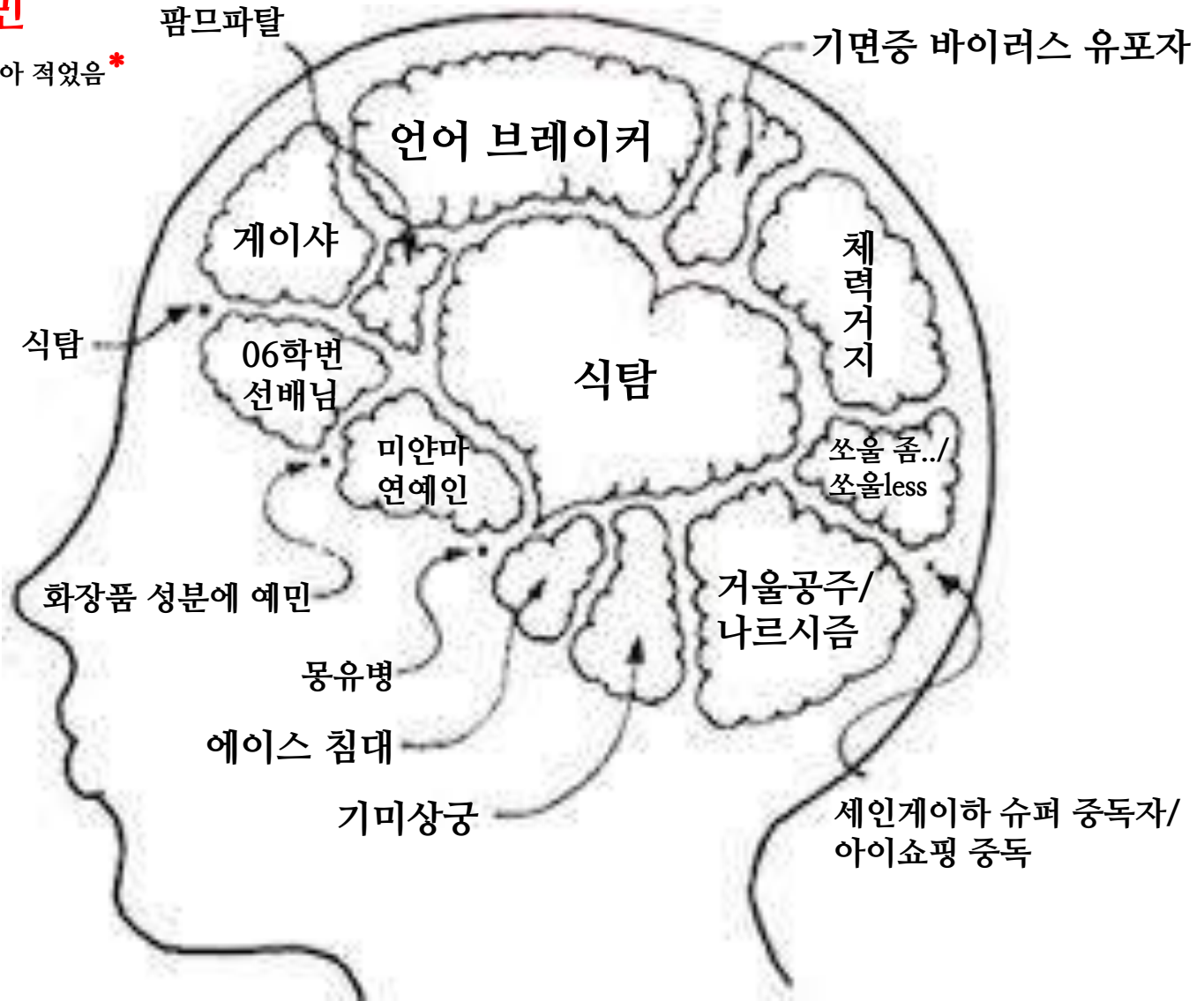
15. 효율왕 : 효율성을 잘 따지는 남자. 자신의 관심의 대상에 있지 않은 것에 시간을 보낼 때 놀라울 정도로 집중력이 떨어진다.

16. 나홀로콘서트 : 방에 홀로 있을 때 노래에 심취하며 열띤 열창을 한다. 한편, 그 노래를 듣는 유진,정민 단원은 "저 오빠 또 시작이네..."라고 한다고...



후보 3. 송정민

* 팀원들 의견을 토대로 받아 적었음 *



후보 3. 송정민

▶ 4. 뽀양쪄? ㅎㅎㅎ



1. 쏘울 좀.../쏘울less : 피곤하거나 관심 없을 때 나타나는 특유의 영혼 없는 표정. 진심으로 감탄하거나 좋아할 때 나오는 추임새에도 쏘울 좀 담으라며 준영 단원의 구박을 받음. (억울).

2. 체력 거지 : 누군가를 괴롭힐 때 놀라울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고, 힘들 때 엄청 빨리 방전된다.

3. 거울공주/나르시즘 : 거울을 보며 자신의 외모에 흡족한 듯 자신의 상태를 체크한다. 어딜 가나 거울은 필수품.

4. 게이샤 : 평소 피부가 하얗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뽀얀 피부의 소유자라 해두자.

5. 기면증 바이러스 유포자 : 어느 곳에서나 잠잠. 단원들에게도 그 바이러스가 전염됐다. 그룹에도 바이러스 숙주답게 잠에서는 단연코 1등.

6. 06학번 선배님 : 술을 먹이고 권유하는 모습이 자기가 아는 06학번 선배와 같이라며 준영 단원이 치를 떨었다고 한다.ㅋㅋ 물 흐르듯이 옆 사람들을 하나, 둘 보낸다.



▶ 1. 쏘울 less 3단계...☆☆



▼ 2. 체력 방전



▶ 3. 거울로 상태 확인중

7. 언어 브레이커 : 언어 전공자답게 언어에 대한 애착이 남다름. 다른 단원들이 글자 읽는 것을 포기해갈 때쯤 그녀 만은 예외.

8. 미얀마 연예인 :미얀마에서 미모 포텐이 터지는 중.ㅋㅋ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덕에 자신감의 어깨가 하늘로 찌른다. 미얀마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나 고민중.

9. 기미상궁 : 입이 핵핵 짧다. 음식을 시킬 때 혼자 다 해 치울 것처럼 허세를 부려놓고, 몇 입 못 먹고 포크를 탁! 하고 내려놓는다. 그 후 팀원들의 핀잔은 보너스.

10. 피부관리/화장품 성분에 예민 : 피부 관리, 각종 팩을 즐겨함. 준영 단원이 산 10만원치 화장품 성분이 쓰레기라 서 안 좋아서 경악했다고 한다.

11. 에이스 침대 : 한번 안졌다 하면 그녀의 품에서 헤어 나올 수 없다. 폭신한 탓일까. 아이들이 앞뒤로 기대서 잘 잔다.

12. 식탐 : 식탐 보스이나 입이 짧아서 항상 아쉬워한다. 배가 식욕을 따라가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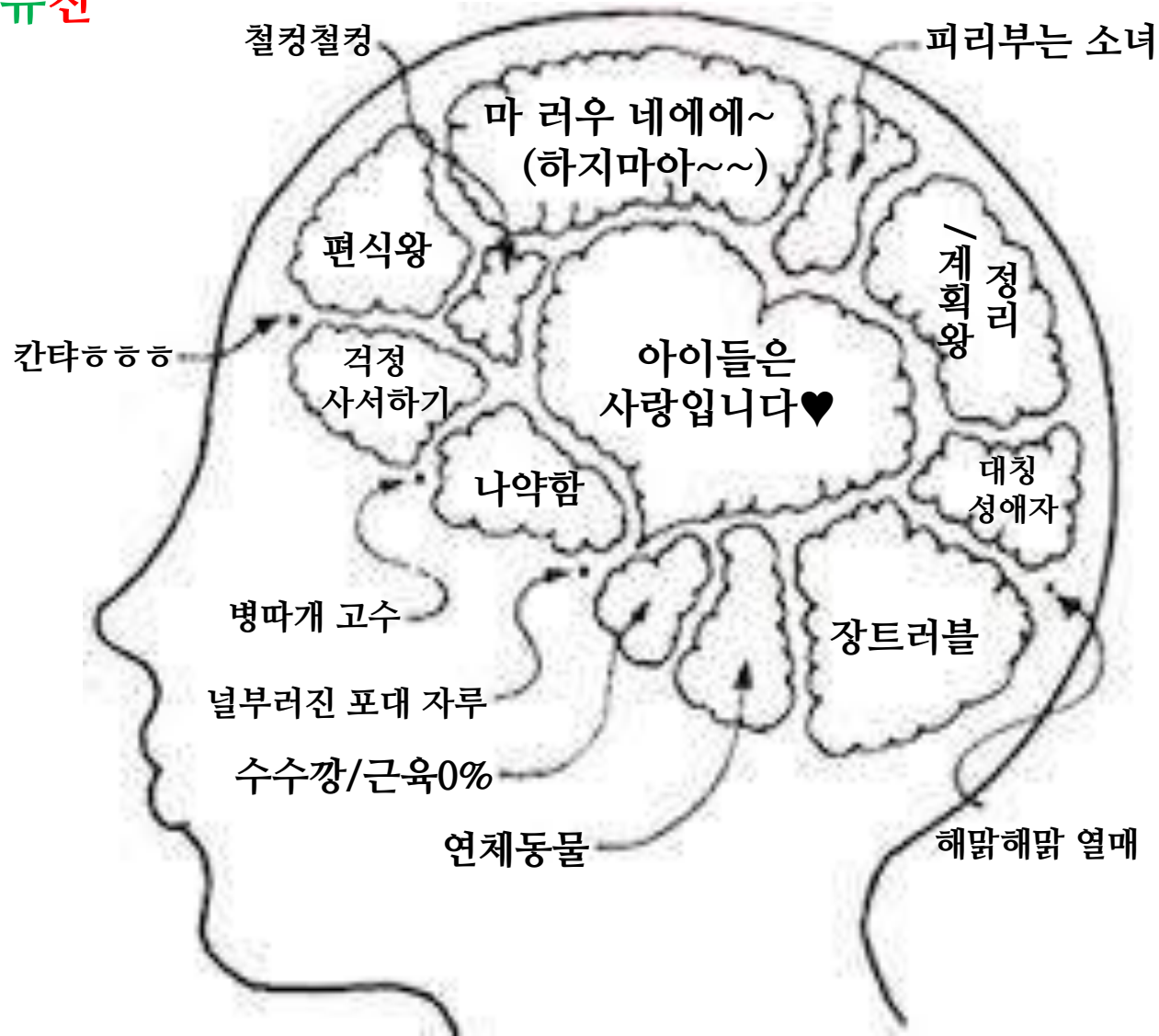
13. 몽유병 : 평소 서서도 앉아서도 푹푹이 잘 잠. 최근, 잠을 잘 때 부채질을 하는 놀라운 행동을 보고 지어진 별명이다.

14. 세인 게이하 슈퍼 중독/아이쇼핑 중독자 : 슈퍼에 살 것이 없더라도 구경하러 자주 나감. 덕분에 슈퍼에 갈 때마다 재 또 왔냐는 직원들의 눈빛이 느껴진다고 한다.

15. 팜프파탈 : 치고 빠지기의 달인. 놀리고 장난 거는 것을 잘하는데, 어르고 달래는 것도 잘한다. 한마디로 정도를 잘 안다. 그런 그녀의 행동 덕분에 팀 내 분위기가 잘 산다.(부끄)



후보 4. 임유진



후보 4. 임유진

▶ 2. 하지뻬ㅠㅠ



1. 널부러진 포대 자루 : 버스 안에서 졸 때 정말 안쓰럽게 잔다. 흡사 널부러진 포대 자루 같다...

2. 마 러우네에~~(하지 마~~) : 아이들에게 괴롭힘 당할 때 자주 쓰는 말. 너무 부드럽게 말하는 탓일까, 씨알도 안 먹힌다.

3. 철컹철컹 : 아이들의 입술을 잘 흠치는 그녀. 준영 단원이 구속각 이라고 놀려대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성의 매력이 있다.

4. 해맑 해맑 열매 : 언제 어디서나 방실방실, 해맑게 웃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5. 아이들은 사랑입니다♥ : 모든 아이들, 애기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며, 아이들도 그녀를 사랑한다. 아이들을 보는 눈빛에서 사랑이 느껴진다.

6. 피리 부는 소녀 : 쉼뼀사에서 인기 펍.발.☆ 모든 아이들이 그녀의 옆구리를 간질이러 따라다닌다. 도망치기 바쁜 그녀를 보는 것은 꿀잼.



▶ 1. Like 널부러진 포대기



▶ 3. 쪽쪽 (철컹)(철컹)



▶ 4. 해맑 해맑 ㅇㅂㅇ



▶ 5. 아이들 볼 때 눈빛

7. 계획왕/정리왕 : 평소 꼼꼼하게 계획하고, 정리하기를 좋아한다. 자신의 이런 습관을 피곤해 하면서도 어느새 흘린 듯이 무엇인가를 꼼꼼히 기록하고 정리하고 있다.

8. 걱정사서하기 : 평소 걱정과 생각이 많다. 고민, 걱정이 많은 날에 그녀의 눈가는 쾅해진다.

9. 연체동물 : 어깨가 360도로 돌아가는 것을 물론 거침없는 다리 찢기까지. 가끔 해파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10. 장트리블 : 예민한 위,장을 가진 그녀. 굵은면, 밀가루, 고기를 많이 먹었다 하는 날에는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며 한줌의 재가 된다.

11. 병따개 고수 : 정민 단원이 킁킁거리며 못 댔던 술병을 손가락으로 거침없이 뿡! 하고 댔다. 경쾌한 팡파레 소리가 터지는 줄...

12. 편식왕 :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안 먹거나 못 먹는 음식이 많은 편식쟁이다. 어쩌면 준영단원을 능가하는 까탈레나 입맛이다.

13. 대칭 성애자 : 선, 도형, 점대칭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그녀. 반듯한 침대시트, 각 잡고 빨래 접기 등등 수많은 각 잡기에 집착한다. 역시 수학교육과...절레절레...



14. 나약함 : 말만 강하다. 한번 아프면 회복이 더디며 기본 1주일은 간다. 모기 물리면 피부에 멍이 드는 유리 피부의 소유자.

15. 수수깡/근육0% : 근육 1도 없음. 팔굽혀펴기 할 때 몸이 파들파들 거린다. 흡사 특 치면 부러질 것 같은 수수깡같다.

| 각기 다른 우리 **넷**의 공통점 |

-앞으로도 더 많은 공통분모가 채워지길 바라며...-



아이들♥

기분파

쿠크 멘탈

쉽이 필요

먹는거 좋아해요

올보

몸이나 마음이 아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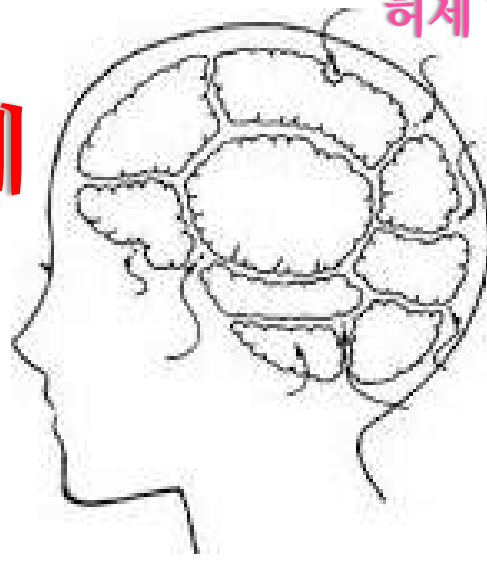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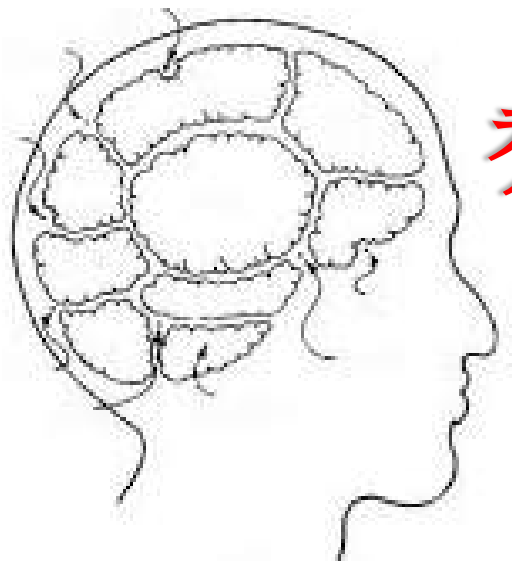
음악/노래

이야기

뜯끼

히세 낭낭

치뎃



2016.09 September ESSAY

엄준영이 보낸 미얀마의 30일치 정도 이야기들

한달이 지난 지금...

미얀마에 온지 한달 가량이 되어간다. 짧지 만은 않은 시간들이었다. 온몸이 미얀마 라는 파도에 휩쓸려 목까지 차오르는 느낌이다.

첫날의 공황은 그리 이질감은 없었다. 이후 만난 산드라는 인심 좋은 미소를 가진 아주머니였다. 짧은 인사 후, 서둘러 탔었던 밴에서 첫 느낌은 후덥지근하고, 이국적인 느낌이었다.

이튿날, 하우스키핑을 시작으로 이어진 양곤 YMCA 의 일상들은 책상에 던져져 흐트러진 사진들처럼 혼란스러웠다. 적응을 했다고보다는 아직은 그냥 살고 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다.

양곤은 정말 복잡하고 바쁜 도시다. 그리고 더불어 나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새롭게 올라가는 건물들과 무너져가는 옛날 건물들, 그리고 그 사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있는 세계 브랜드 가게들, 곳곳에 퍼져있는 환경문제들이 계속해서 시선을 잡아 끌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과는 별개로 바쁘게 살아가는 미안
마 사람들과 그 사이에 있는 나.

또 하나는 감정적인 부분이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감정들이 튀어나와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 감정들
은 생소한 모습들이었고, 발가벗겨진 것 같아 부끄럽기
도 했다.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나’를 보는게 무섭다.
많은 원들이 겹쳐지면서 머리 속이 어지러운 상태다.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느끼기로 일단 정했다. 유난히 멀
미를 심하게 해서, 처음에는 좀 괴로웠는데, 계속해서
타고 다녀서 그런지 이제 멀미를 다루는 것도 능숙해졌
다. 마찬가지로 감정이나 이외에 것들 또한 능숙하게
다루게 될 것이라 믿는다.

활동에 관해서...

널 써리 활동은 크게 세가지로 마오끌라바, 힐랑따야,
쉐비따 였다. 사실 처음에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환하
게 웃으며 우리를 반겨주는 모습에 그런 걱정들 따위는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다.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
친다는 말보다는 같이 시간을 공유함으로써 행복을 나
눈다는 표현이 더 맞았던 것 같다. 같이 있으면 나의 얼
룩진 부분이 씻겨 나가는 기분이었다.



와
신
상
담

KBbank&YMCA Raonatti 16th

2016.10.07
by 하도현



글을 쓰기 전 우선,

우리 팀의 첫 보고서를 만드느라 고생한 정민이와 유진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9월과 11월은 유진이와 정민이, 10월과 12월은 준영이형과 나, 최종보고서는 다 같이 만들기로 해서 9월 보고서는 그녀들이 만들었다. 지금 보고서의 내용을 전혀 보지 못했지만 그녀들을 믿는다. 여하튼 수고했다 애들아.

현재 2016년 10월7일 금요일 미얀마시 20시28분 배고픈 저녁에 이 글을 쓰고 있다. 오늘도 이 나라에서 무사히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제 한 달 동안 미얀마에서 살면서 느낀 점을 써보려 한다. 그리고 지극히 사견이라는 점을 미리 밝힌다.

양곤 ymca는 라온아띠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서 강하게 느끼는 점은 양곤ymca는 우리 라온아띠를 사업의 일부분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양곤YMCA수뇌부 중 몇 명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엔 이것은 전혀 파트너 관계가 아니다. 이제는 그러려니 하면서 살고있지만 궁금한 사항이다. 양곤ymca와 우리 라온아띠가 대체 어떤 관계이고, 무엇을 위해서 협력을 하고있는가? 그들이 정말로 우리를 아시아의 친구라 생각하는 것이 맞는가? 명목 상 라온아띠를 매개체로 단체의 이익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널

서리에 관하여

아이들을 만날 때만큼은 웃고있다. 웃을 일이 거의 없는 이곳에서 행복한 일이다. 나에게 다가와 애교를 부리고, 놀아 달라 떼쓰고 그들에겐 내가 소중한 존재이다. 그들을 만나려면 편도 시간 짧으면 1시간30분, 길면 3시간을 가야한다. 몇 시간 동안 버스에 앉아있으면 여간 엉덩이가 아픈 게 아니다. 버스 승차감은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이다. 하지만 이제 그러려니 하면서 그들을 만나러 간다.

나

는 식(食)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람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있을 것이다. 난 식(食)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소위 인간의 3대 욕구라 불리는 수면욕, 성욕, 식욕 중에서도 난 식욕이 제일 강하다. 어떤 누구는 다른 욕구가 더 강한 게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난 먹는 것을 으뜸으로 삼는다. 하지만 이곳에서 나의 가치가 깨져버렸다. 나에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제대로 못 먹고 다니는 것이 가장 힘들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힘들다. 남이 먹다 남은 치킨 조각을 권할 때 개의치 않아 하면서 고맙다고 말하며 먹는 나의 모습. 족히 20번은 씹어야 삼켜지는 고기를 먹는 나의 모습. 점심 도시락을 먹으면서 코디네이터가 반찬을 남기는지, 안 남기는지 눈치를 보는 모습. 그가 반찬을 남겼을 때 '먹을래?'라고 물어보면 웃으면서 고맙다고 말하며 넙죽 받아먹는 나의 모습. 서럽다. 타지에서 밥 제대로 못 먹고 다니는게 이렇게 슬픈 것이라는 걸 군대 이후로 다시 느낀다. 하지만 군대에서보다 못 먹고 다닌다. 나는 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생각한다. '저 맥아리 없고 손가락으로 한술 뜨면 부서지는 밥은 탄수화물, 20번은 씹어야 삼킬 수 있는 고기는 단백질, 아주 기름지고 짠 야채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모든 음식을 음식으로 보지않고 영양소로 보면서 먹는다. 살아야한다.'

<양곤에서의 한 달> -정민-

양곤에서의 한 달이 지나갔다. 입버릇처럼 “아직 2주일 밖에 안됐어?, 3개월은 있었던 것 같아.” 라고 말하던 시간을 지나, 지금 이렇게 한 달의 끝자락에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 다시 돌아켜 보면 시간이 참 빨리 흐른 것 같다.

조금 어색하다고 느꼈던 팀원들과 어느새 가까워 졌다. Y스텝 분들과 서먹하여 어색한 웃음을 짓던 내가 어느새 진심으로 같이 웃고 있다. 심하게 덜컹거리고, 타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미얀마 버스에도 완벽 적응했다. 이제는 책도 읽고, 자기도 한다. 초반에 어리숙하게 진행했던 널서리 활동도 이제는 상황과 활동지에 맞게 유연하게 활동 할 수 있다.

아이들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처음 아이들을 만났을 때 낯선 눈으로 나를 쳐다 보던 아이들이 떠오른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몰라, 괜히 손을 툭 툭 건드리고 옆구리를 쿡쿡 찌르고 했다. 그랬던 아이들이 이제는 정말 환한 미소로 나를 반겨준다. 나도 어느새 아이들 한명, 한명의 이름을 알게 되고, 친숙해져 간다.

아이들에게선 향기가 난다. 비누 향 같기도, 코코넛 향 같기도 한 달콤한 냄새. 아이들을 꺼안은 채 아래를 내려다 보면 볼록한 양볼, 작은 손과 발이 너무 귀엽다. 지금 나는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었다. 나를 보며 환하게 웃는 아이들, 반짝이는 예쁜 눈, 내가 미얀마어를 알아 듣지 못함에도 “어마/마마!” 하며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는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다. 아이들을 볼 때면 고맙고, 미안하고, 그리고 정말로 행복하다. 널서리에서 만나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기차 안, 길거리에서 보이는 아이들에게도 눈을 땔 수 없는 것을 보니,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하게 된 것이 틀림없다.



처음 미얀마에 왔을 때는 긴장되었고, 흥분되었다.

한 달 동안의 내 기분은 자꾸만 오르락 내리락 했다. 기분이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안 좋을 때는 정말 우울해 진다. 감정의 기복이 있었고, 자꾸만 내 마음이 좁아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 당시에는 엄청 스트레스 받아 짜증내고 화냈던 감정들이 이제는 생각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나 보다. 화남, 즐거움, 행복함, 짜증, 우울 등 온갖 감정들을 다 휘몰아 쳐서 느낀 것 같다.

출국 때 나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확연히 다르다. 국내훈련 때의 나, 출국 때의 나,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내가 아니다. 나는 좋든, 싫든 매일 매일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9월 8일

5개월 동안 내가 무엇을 꼭 배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자. 꼭 성장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사로잡히지 말자.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매 순간 도전하자. 주저하지 말고 아낌없이 내 열정을 쏟아 붓자. 열심히 느끼고, 경험하고, 즐기고, 사랑하자. 5개월을 그 누구보다 가장 나다운 5개월로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 값진 선물에 감사하고, 멋지게 즐기자.

난 내가 가진 긍정적인 역량들을 믿는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쓸모 있는 사람이다. 내 스스로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사랑해주자. 5개월 후의 나는 분명 다른 모습일 것이다. 내면이 반짝 반짝하고 끝은 사람이 될 것이다.

9월 11일

내가 너를 얻으려고 라온아띠에 왔나 보다.

나의 본질 찾기

‘결과에 신경 쓰지 않고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한다는 것. 참 겁나는 일이다. 난 내가 쓰고 있는 가면 속 나의 실체를 어찌면 잘 알고 있다. 참 못난 모습이 많다. 이 모습대로 살아가면 난 분명 예쁨 받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솔직하지 못한다. 포장을 해서라도 매력 있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그런데 지치기 시작한다. 적어도 이 5개월만큼은 내 있는 그대로를 찾기로 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일까. 당당하고 솔직해져 보자. 예쁘지 않아도 된다. 못 나도 괜찮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모두 해보고,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해보자. 솔직해지자. 내 방식대로 내 자신으로 존재하자.

9월 25일

내가 잠시 버리고 싶었던 내 습관들. 잘 안 멈춰진다. 관성인가보다. 조금만 더 천천히, 여유롭게, 조금씩 생각하지 말고...

“9월의 유진”



9월 14일

널서리 활동이 있기 때문에 미안마를 지원했다. 누군가는 이 활동에 회의감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거창한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난 아이들과 함께하는 짧은 순간들만으로 충분히 행복하다. 내 손길이 이렇게나 쓸모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어서, 내 사랑이 이렇게나 가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어서 감사하다.

5개월 동안은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싶다. 짧은 기간이지만 매주 우리를 만나게 될 어여쁜 아이들이 좀 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좀 더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어린 아이들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우리의 교육이 살아가는데 아주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아니 우리와 함께하는 그 시간만큼은 그저 즐거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의 이름을 들었는데도 까먹는 내가, 아이들을 한 명씩 안아 들어올려주는 것도 체력적 한계를 느끼는 내가 답답한 하루였다. 그래도 좋았다. 아이들과 눈 마주치고 있는 힘껏 안아주고 간지럼을 태우고 살을 부딪히는 그 순간들이 행복했다.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과 작은 손, 순수한 미소를 보는 것이 기뻐다. 오늘 밤 이렇게 행복하게 잠 들 수 있어 감사하다.

나의 경계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양보해야 할까.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참아야만 할까.

어디까지 침범하고 있는 걸까. 많이 괴롭게 하고 있는 걸까.

나도 상대방도 많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9월 30일

많이 보고 싶다. 텔레파시 보내야지

“9월의
유진”





10월호에서 만나요!